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원종권 핀따노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703-968-3011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웹사이트: <https://stpaulchung.org>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해”

추석 합동 위령 미사와 효도 잔치



지난 9월 27일에 추석 명절을 맞아 본당에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오전 8시 및 10시 미사에 앞서 가족 단위로 절을 올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은인 분들을 기억하며 연도를 바쳤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터 친교실에서는 75세 이상의 본당 어르신 140여분을 모시고 한가위 효도 잔치가 열렸습니다. 점심 식사 제공 후 이준호 요셉 형제님이 퀴즈 및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웃음 치료 및 율동을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핸드벨 연주곡 소개]



영성체

- 곡명 : 성가 55장 착하신 목자 (Blessed Assurance)
- 곡해설 : 가톨릭 성가 55장 '착하신 목자 (Blessed Assurance)'는 예수님을 '착하신 목자'로 묘사하며, 예수님이 우리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걸...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때 그 사람이 /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사랑할걸...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시인은 자신이 흘려보낸 많은 사람과 물건이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였을지 모른다고 후회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인연이, 별것 아니리라 생각했던 많은 사건이, 나중에 돌아보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소중한 선물로 밝혀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삶에 찾아오는 꽃봉오리들을, 그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소작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밭 주인이 소작인들에게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자, 소작인들은 그게 싫어 심부름꾼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소작인들은 밭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려 그 포도밭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소작인들에게 아들까지 보내며 존중을 기대했지만,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마태 21,38)라며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소작인들을 찾아간 심부름꾼도, 밭 주인의 아들도, 모두 소작인들에게는 꽃으로 피어날 기회였습니다. 주인은 불충한 소작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소작인들은 그 마지막 기회까지 모두 걷어차고 탐욕으로 눈을 가린 채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 소작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인연을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이, 내 삶에 찾아온 사람이, 어떤 기회인지, 무슨 꽃봉오리인지 마음을 열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과 예상하지 못한 사고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줄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욕심에서 한 발짝 떨어져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삶에 찾아오는 꽃봉오리들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색색의 꽃봉오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만개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

금주의 전례상식

전례 동작과 자세 - 절

미사 때 신자들은 하나의 자세만을 취하지 않습니다. 전례의 순간에 따라, 앉고 서고 절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동작과 그 자세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만큼, 교회는 오랜 시간 문화적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된 동작과 자세를 전례에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동작과 자세는 “거룩한 전례에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이 이루는 일치의 표지”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각을 표현해 주고 길러”(「미사 경본 총지침」 42항) 줍니다. 이번 주는 미사 전례에서 취하는 동작과 자세 중에 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례에서 “절은 어떤 이나 그의 표상에 공경과 영예를 드림”을 뜻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허리를 굽히는 깊은 절과 고개를 숙이는 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허리를 굽히는 깊은 절은 사제가 입당 행렬을 하여 제단 앞에 이르렀을 때, 신경 중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 구절에서, 축성된 빵과 성작을 거양한 다음과 영성체하기 전에 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대한 지극한 흠숭을 드러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입당 때를 제외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닿게 하는 무릎 절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깊은 절로 무릎 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절은 하느님의 세 위격을 한 번에 부를 때, 예수님이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성인을 공경하여 거행하는 미사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광송 중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1. 연중 제 27주간 일정 안내

- 10월 4일 (일) :
 - 올뜨레아 야외 행사 (오전 11시 30분)
 - K of C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사랑의 율타리 (오전 11시 30분)
- 10월 9일 (금) : 영어권 형제 모임 (저녁 8시)
- 10월 10일 (토) : 5K 걷기, 달리기 대회 (오전 7시)
 - 유아세례 (오후 2시)

2. 연중 제 28주간 일정 안내

- 10월 11일 (일) :
 - 단체장 회의 (오전 11시 30분)
 - 꼬미시움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복사단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센터빌 구역 가을 야유회 (오전 11시 30분)
- 10월 13일 (화)-16일 (금) : 캐나다 성지순례
- 10월 16일 (금) : 베드로회 자매 모임 (저녁 8시)
- 10월 17일 (토) : 성체 조배회 (오전 9시), 미사 (오전 11시)

3. 주일학교 학부모 모임과 단체 카톡방 안내

-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3시-4시 15분
- 장소 : 친교실
- 주일학교 학부모님들을 매주 주일 초대합니다. 따뜻한 교제와 차한잔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학부모님들의 단체 카톡방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QR 코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27-1932)



4. 올뜨레아 야외 행사

- 일시 : 10월 4일(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 장소 : 나눔터
- 꾸르실리스타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센터빌 구역 가을 야유회

- 일시 : 10월 11일 (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 장소 : 나눔터
- 센터빌 1반 - 4반 신자들이 함께하는 가을 야유회에 센터빌 구역 모든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꾸르실료 주관 5K 걷기/달리기 대회

- 일시 : 10월 10일 (토) 오전 7시-10시 (아침 식사 제공)
- 장소 : 버크 레이크 공원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10월 4일 (일)까지 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참가비 : 1인 \$20 / 2인 \$30 / 가족 (3인 이상) \$40
- 이날 참가비는 2027년 WYD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 문의 : 박기정 라파엘 (703-862-0039)

7. 생명 존중의 달 및 장애인을 위한 연례 미사

- 알링턴 교구는 생명 존중의 달 (Respect Life Month)을 맞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연례 미사를 봉헌합니다. 마이클 버비지 주교님께서 주례하시는 이번 미사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하며, 특히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가정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10월 11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 Cathedral of St. Thomas More (토마스 모어 주교좌 성당)
- 미사 후 Burke Hall에서 간단한 다과와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8. 세계 전교 주일 2차 헌금 안내

- 10월 18일(일)은 세계 전교 주일입니다.
- 올해는 전교 주일 지정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 되는 올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로 하나됨”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교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 이날 미사 중에는 전교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이 헌금은 전 세계 1,124개 전교 지역의 신학생·수도자 양성, 평신도 신앙 교리 교육, 교회와 학교 건축, 의료 및 사회봉사에 지원 될 것입니다,
- 미리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9. 볼티모어 성당 성전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김치 판매

- 볼티모어 성당 신자분들이 성전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김치 판매를 합니다.
- 주문을 10월 25일 (일)까지 받을 예정이오니 신청하실 분들은 주일 8시, 10시, 2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판매 수익금은 볼티모어 성전 건축 기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0. 2026년 혼인 기념 미사 (Mass for Marriage Jubilarians)

- 올해 혼인 25주년 또는 50주년을 맞이하는 부부들을 위한 기념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 후 리셉션에서 기념 증서가 배포될 예정이며, 기념미사에 참석하신 부부들은 버비지 주교님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 대상 : 2001년 또는 1976년에 혼인한 부부
- 일시 : 2026년 10월 18일(주일) 오후 2:30
- 장소 : Cathedral of St. Thomas More (토마스 모어 주교좌 성당)
- 주례 : Bishop Michael Burbidge
- 참석을 원하시는 부부는 본당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루에 여러번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 옛날에는 지금처럼 매번 미사때마다 영성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무렵부터 프랑스에서 성체를 열심히 모시려는 신심 운동이 퍼지면서 날마다 영성체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하루에 여러번이라도 영성체를 많이 하면 좋은 것일까요? 한국천주교사목 지침서 제79조에는 “같은 날 여러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영성체를 권장하지만 지나친 남용이나 미신적인 집착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학생 견진성사를 축하합니다

- 학생 견진성사가 마이클 버비지 주교님을 모시고 은총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 학생들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도와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견진성사를 받은 23명의 학생들이 성령의 은총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주어진 세례명을 바꿀 수도 있나요?

- 세례명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으로 정하는데, 일생동안 그 성인을 수호자로 공경하며 덕행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세례성사가 신앙에 들어서는 입문 성사로서 일생동안 영구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처럼, 한번 받은 세례명도 함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어릴때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례명을 받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음감이 좋지 않거나 혼하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한국 주교회의는 2015년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신자가 이름을 바꿨을 경우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만, 세례명은 사목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습니다.
- 다만 같은 세례명을 다른 언어권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요한은 존(영어권), 장(불어권), 후안(스페인어권)으로 불릴수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6년 9월 27일 (연중 제 26 주일)	
봉헌금 -----	\$9,367.00
교무금 -----	\$4,190.00
교무금 (신용카드) ---	\$2,780.00
감사 헌금 -----	\$300.00
온라인 봉헌 -----	\$1,760.00
합계 -----	\$18,397.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6년 10월 08일 (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10월 09일 (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10월 11일 (일) 오전 6시 - 7시	
1. SPC 학생 견진 성사	
2. CPBC 가톨릭 뉴스	
3. 구역이 주는 선물: 1강	

교중미사 예물봉헌	
10/04 이번주	스프링필드 구역
10/11 다음주	프린스 윌리엄 구역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